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8-14

정윤돈 목사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어제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신 찬양대와 성탄 준비팀에게 감사드린다. 설교를 뮤지컬로 다 해 버려서 할 게 없다. (웃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나? '메리'라는 말은 기뻐하자는 말이다. '마스'는 기념일, 탄생일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자는 의미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기자, 그런 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자.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다.

서론 : 성탄절과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

(1) 성탄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노엘'이라는 말이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가장 모르고 있는 용어가 이 단어다. '캐롤'과 같은 의미인데, '캐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라는 의미다. 그러면 캐롤의 원조가 무엇인가? 이것이 누가복음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구약에는 찬양시가 많지만 신약에는 많지 않다. 그런데 누가복음 안에는 찬양이 많이 나온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찬양의 원조가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노엘'이라는 말은 '기쁜 외침'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이제는 편하다, 평안이 있다(now well)'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다. '소식'이라는 프랑스어 '노벨라'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말이 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찬양하며 외쳐 봅시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2) 다음으로는 누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다. 성경이 66권이고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약 40명 정도 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었지만, 유독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이방인인 사람이 누가였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누가복음이 성탄절에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성경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초기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설화나 예수님의 십자가 등에 대해서 어깨너머로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구약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언약도 모른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니 너무 궁금한 것이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분인지. 누가 자신부터 궁금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같이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 자료를 모았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게 된 것이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잠시 보자. 누가복음 1:1-2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누가 이전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다. 누가는 그들의 이야기와 자료를 다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3) 누가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는가? 누가복음은 편지

인데 수신자가 있다. 그가 데오빌로였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3에,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했다.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장관급의 고위공직자 혹은 군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이 편지가 많은 사람에게 읽힐 상황이니, 그 실명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 즉 하나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분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각하께'라고 애칭을 붙여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란다.

1.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1) 누가는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적었을까? 우리는 누가의 마음, 데오빌로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을, 복음을 사랑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다. 갈릴리, 예루살렘의 상황이 궁금한 것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운동이 세계복음화까지 하게 된 것이 너무 궁금한 것이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에게 정확한 내용을 답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한 것이다.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만 궁금했겠는가? 누가도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었을 것이다.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고마우니까.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더 잘 알고 싶은 것이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싶은가? 공부하고 싶은가? 성경 역사를 알고 싶은가? 이분들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알고 싶다.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된다. 오늘, 기쁜 성탄의 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다짐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더 깊이 알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더 깊이 알자.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닌가. 우리의 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인 것이다.

(2)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고 싶어서 주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병들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개인, 가정, 나라가 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되었다. 문화가 만들어졌다. 대학이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심하자.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자.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3)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주라는 말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부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2. 그리스도의 축복을 더 깊이 누리야 한다.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 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1)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다. 선지자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길이 막혔는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란다. 막힌 길이 터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일 것이다. 이 나라의 길이 정치에, 이념에 있지 않

다. 그리스도의 길을 붙잡을 때 이 나라가 선진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중에서 단 몇 명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기도하면 나라에 막힌 문이 열릴 것이다. 통일의 길, 선진복지국가의 길, 세계복음화할 나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램넛트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날 이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2)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무엇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여러분도 가정, 교회 현장에서 그리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란다. 내가 죽으니까 다 살아난 것이다. 정치, 경제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다만 살려고 하기 때 문이다. 왜 교회가 분열되는가.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가 희생하고 죽고 양보하면, 가정, 교회, 국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희생하시기 바란다. 이번 성탄절은 두 배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처음에 라디오스타 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오늘도 램넛트들이 나와서 같이 뮤지컬을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희생이 있었다. 집사님의, 어린이들의, 찬양팀들의, 준비하는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되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절대 헌신 속에서 전체를 살리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 힘들지 않다. 육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 뒤의 축복이 훨씬 크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너무 헌신했는데 힘들지 않고, 더 하고 싶고, 기쁘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헌신이다. 공부도 직장도 마찬가지다. 너무 재미있어서 즐겁게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탐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왕이다.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왕권이 없어서 그렇다. 나는 선교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종종 만났는데, 너무 어려움과 재앙에 시달린다. 자꾸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런지를 나중에 알았다. 저주와 재앙을 막을 왕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인, 가정, 가문, 나라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간다. 저주가 물러간다. 오려고 해도 피해서 간다. 그게 왕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이다.

3.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

(1)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다. 처음 오신 분들, 초청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도록 여러 성도들이 헌신을 하셨다. 어떤 분들은 거액의 현금도 하셨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란다. 그보다 더 큰, 최고의 선물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정과 개인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받는 것이다. 천 년의 응답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자.

(2)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문제가 자꾸 온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다시 영

접하며, 결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로, 또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제 영혼과 삶에 임하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론 :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기도를 같이 하신 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다. 말씀을 마무리한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지금 당장 얻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1)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2) 둘째, 하나님은 끝까지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잘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3) 셋째, 기도하는 만큼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도 크게 하라. 크게 하는 만큼 큰 응답이 올 것이다. 나는 많은 응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운택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예덴, 하나님의 나라다. 가난하고 못 살면 홀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다. 흑암을 못 이긴다. 크게 기도하다가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4) 넷째,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아, 천사가 우리를 도왔구나' 싶을 때를 많이 겪는다. 이번 성탄 행사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 것을 느끼지 않았다. (5) 다섯째, 사단이 결박되는 권세를 가졌다.

(6) 여섯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장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

(7) 일곱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필리핀 신학교를 후원했다. 여기에서 나온 제자가 팔라완 섬으로 파송되었는데, 이 아브넬 선교사님이 혼자 복음을 전했는데 지역을 다 살려냈다. 대학, 중고등학교를 다 만들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한다.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역사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은 가족과 함께 모여서 행복을 나누는 크리스마스의 날에, 이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한 번 묵상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복된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온 가족과 함께 모여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지인이 있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